

사회

# 화정주공 재건축 조합 압수수색

## 광주지검, 조합장 비리 포착... 서구청 공무원 참고인 조사

### 광주 U대회 선수촌 영향 미칠지 주목

광주지검이 3일 오후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광주U대회) 선수촌으로 쓰일 화정주공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합장의 개인비리 혐보가 있어 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합원총회, 이주 및 철거, 청산협 의절차 등을 앞두고 있는 재건축조합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민선 5기 광주시 핵심 도시재생사업인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에 미칠 파장이 주

목되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일권)는 이날 "재건축 조합장의 개인 비리가 포착돼 광주시 서구 화정주공 아파트 재건축조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합사무실에서 회계장부 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재건축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체들의 자금이 유입됐는지 여부와 이 같은 자금이 비리와 연관됐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조합장 개인 계좌추적 등 전방

위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이날 오후 광주시 서구청 관련 공무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는 내사가 아니라 수사이며, 아직 구체적인 것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검찰 수사와 관련 조합장 정모씨는 "무엇 때문에 수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재건축과 관련 일부 주민들과 마찰이 있었던 만큼 이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한 뒤 조합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

이다. 화정주공 재건축 사업은 조합·일반 비분양 일부 광주시 부담 조건으로 우여곡절 끝에 현대건설을 시공업체로 선정했으며, 이후 높은 분양가, 관리총당금 미지급 등으로 논란을 겪었다.

이 사업은 오는 2015년 상반기로 완공 시한이 정해져 있어 연초 이주 및 철거, 현금 청산, 2012년 초 공사 착공 등의 일정에 차질을 빚을 경우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시민과 함께하는 '동적골 가을음악회'

'동적골 가을 음악회'가 3일 오후 광주시 동구 운림동 동적골 체육센터에서 열렸다. 동구청이 개최한 이 행사에서 지난 1동 스포츠댄스팀이 울동을 선보이고 있다. /나영주기자 mjna@kwangju.co.kr

## 보험사기에 빠진 가장들

### 전남 올 297명 검거... 30~50대가 90%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30~50대 연령층이 보험사기에 유혹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전남청이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검거한 보험 사기범은 297명으로 이 중 46명을 구속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9명(11명 구속)보다 49% 증가한 것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103명)로

가장 많았고 이어 30대가 31%(92명), 50대가 25.9%(77명), 20대가 4.4%(13명), 60대가 4%(12명)였다.

지난 8월 전국 최초로 지방청 광역 수사대에 보험범죄 전문 수사대를 신설한 전남청은 발족 2개월 만에 8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보험범죄 유형은 허위사고 가장

59.6%(177명), 고의사고 17.5%(52명), 피해과장 10.1%(30명), 기타 12.8%(38)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7일에는 택시 운전자를 하면서 가버른 접촉사고를 당했음에도 127일간 허위 입원해 보험금 2000만 원을 타낸 K씨를 비롯, 5년간 같은 수법으로 1억1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목포 지역 택시기사 24명이 달미를 잡혔으며, 지난 9월6일에는 수사대에 보험범죄 전문 수사대를 신설한 전남청은 발족 2개월 만에 80명을 검거해 5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노래방에 10대 도우미 알선

### 500여만원 챙긴 40대 검거

광주북부경찰청은 3일 유음업소에 10대 청소년을 여성도우미로 소개한 김모(43)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9월4일까지 광주시 북구 김모(여·45)씨의 노래방에 A(16)양 등 청소년 3명을 여성도우미로 소개하고 5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가족에 짐 되기 싫어서..."

"가족들에게 미안해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가족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 떠납니다. 아이들 잘 부탁해요..."

지난 2일 숨진 지 10여일만에 발견된 30대 주부가 남긴 유서의 한 부분이다.

20여년 가까이 발에 지속적으로 열이 나면서 심한 통증을 수반

중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법을 찾을 수 없었다. 10분만 걸어도 극심한 통증이 동반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찬물에 발을 담가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해 왔다.

남편(36)과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도 낳고 조

## 발에 열나고 통증 희소병 30대 주부

### 남편에 이혼요구했지만 만류하자 자살

하는 희소병인 '지단 홍통증'을 앓아 왔던 이모(여·32)씨가 택한 최후의 수단은 자살이었다. 그는 지난 2일 오후 6시50분께 광주시 서구 관천동 한 상가건물 4층 계단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이씨는 중학교 2학년 때 이병이 발병했고 시간이 지날수록 발목 아랫부분의 통증이 점점 심해졌다. 극심한 통증에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병원 이곳저곳을 찾아다녔던 이씨는 '지단 홍통

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하지만 치료법을 찾을 수 없었다. 10분만 걸어도 극심한 통증이 동반돼 생활을 지속하기 어려울 정도가 됐지만 진통제를 복용하거나 찬물에 발을 담가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생활을 유지해 왔다.

남편(36)과 결혼한 후 2명의 자녀도 낳고 조

그만 가게를 운영하며 단란한 가족생활이 지속되는가 했다. 하지만 최근들

어 통증은 진통제로도 견디기 힘들만큼 심해졌다. 심한 통증에 우울증까지 찾아왔다. 병원에서는 "통증을 없애려면 다리를 절단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뿐이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쳐다본다' 조폭이 시민 폭행

### 광양 라이온스파 6명 검거

## 청소년 폭력행사 9명 추가

경찰이 '조폭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시민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한 폭행과 갈취 행위를 벌인 조폭 배틀이 잇따라 검거되고 있다.

광양경찰청은 3일 회식을 마치고 돌아간 시민 4명을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광양 라이온스파 조직원 신모(24)씨 등 6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15일 새벽 4시 50분께 광양시 중동 한 노상에서 회식을 하

고 돌아가던 김모(34)씨 등 대리운전 기사 4명이 자신들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3~6주간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경찰은 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신아에 청소년을 상대로 '조폭'임을 과시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같은 조직 폭력배 9명을 추가로 검거했다.

한편 지난달 24일 조폭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 광주에서는 10명, 전남에서는 19명의 조직폭력배와 그 주종 세력들이 검거됐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 '건설·증시' 기업형 조폭

### 경찰, 최우선 척결키로

조직폭력배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경찰이 건설업과 증권시장, 엔터테인먼트 업계 등으로 세력을 확장하는 기업형 조폭을 최우선 척결 목표로 설정했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조직폭력배 특별단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업형 조폭을 집중적으로 색출할 것이라고 3일 밝혔다. 최근 조폭은 유흥주점, 보도방 등을 갈취하는 기생형에서 건설업, 사채업, 유통업뿐 아니라 증시, 인수·합병, 보험사기, 인터넷 도박 등에 걸친 기업형으로 진화 중이다.

연철뉴스

## 나원침 (8431) 김종두



## 대기업 30대 직원 돌연사

광주 지역 모 대기업에 다니던 30대 남성이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9시35분께 광주시 광산구 하남동 한 아파트에서 김모(31)씨가 숨져있는 것을 매형(38)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을 했는데 뚜렷한 외적 사망요인은 발견되지 않았다. 현재로서는 돌연사 가능성이 크다"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독물 감정을 의뢰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 빈 사무실서 음란전화 줄기다 절도 들뜸

○빈 사무실과 상가를 돌며 상습적으로 절도 행각을 일삼은 범인이 현장에서 음란전화를 즐기다가 결국 경찰에 달미.

○3일 광주동부경찰청에 따르면 Y(48)씨는 최근 3개월 사이 광주시 동구 충장로 일대 빈 사무실과 상가를 돌며 25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사무실 전화로 유료 성인전화업소에 전화를 걸어 야한 통화를 즐겼다는 것.

○최근 출소자 Y씨는 성인전화를 사용하기 위해 성인인증을 진행하면서 개인정보를 남겼다가 들뜸.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http://bike.kjmedia.co.kr

자전거와 함께 농촌사랑을

## 2011 Green 자전거축제 · 농촌사랑축제

2011년 11월 5일(토)~6일(일) 광주상무시민공원(광주광역시광안로15길 수변공원)

주최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일보사

주관 | 광주광역시사이클연맹, 광주광역시생활체육회자전거연합회

후원 | 농림수산식품부 KFA 한국마사회

협찬 | SK telecom

교통지원 | 광주지방경찰청, 전남지방경찰청, 광주서부경찰서, 광주광안경찰서, 니주경찰서

문의 | 062-220-0541, http://bike.kjmedia.co.kr 게시판

이틀 동안 열리는 상무공원 일대에서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홍보장 운영 (11월 5~6일)**

- 11월 5일(토) 14:00~20:00
- 11월 6일(일) 10:00~18:00

**거북이자전거행진 (11월 5일)**

- 11월 5일(토) 14:00

**로드레이싱대회 (11월 6일)**

- 11월 6일(일) 08:30

\*사전 접수자에 한해 출전이 가능합니다.

기타 다양한 이벤트가 열립니다

농촌사랑 축제기간중 축제장에 방문하신분들에게 이벤트와 행사상 추첨을 통하여 (총 1,000만원의 상품)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통기타 공연 / 자전거 묘기 / 밸리댄스 / 풀바 / 각종 이벤트!**